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왜곡 과 은폐를 중지하라

-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세에 대한 항의문-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일본정부가 은폐하는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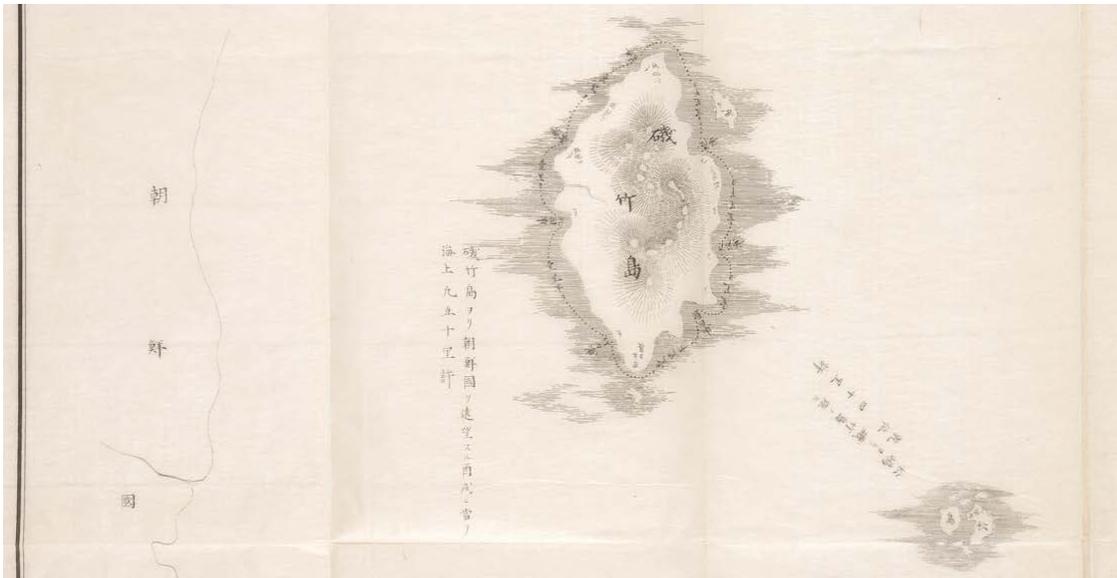
1. 태정관 지령문(1877)

이 문서는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정식명칭
'일본해내 죽도 외일도 지적편찬 방사(日本
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이고 문서철
『공문록(公文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서는 '일본해내 죽도 외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
図外ト定ム)'라는 제목으로 문서철 『대정류
전(太政類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도쿄 다케바시(竹橋)소재 '국립공문서
관' 소장 문서입니다.

- 문서에 빨간 선을 그은 부분은 '서면의 죽도(울릉도)와 그밖에 있는 한 섬(독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고 쓰여져 있다. 바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뜻인데 필사본 상에서는 이 내용을 일반인의 경우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읽기 쉬운 정원본을 숨기고 읽기 어려운 필사본만 열람시킨다는 것은 세인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술책으로 판단됩니다.



필사본에서는 은폐된 『기죽도 약도』 : 일본영토 외의 두 섬이라고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임을 이 첨부지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지도를 뺀 필사본을 계속 정원본처럼 열람시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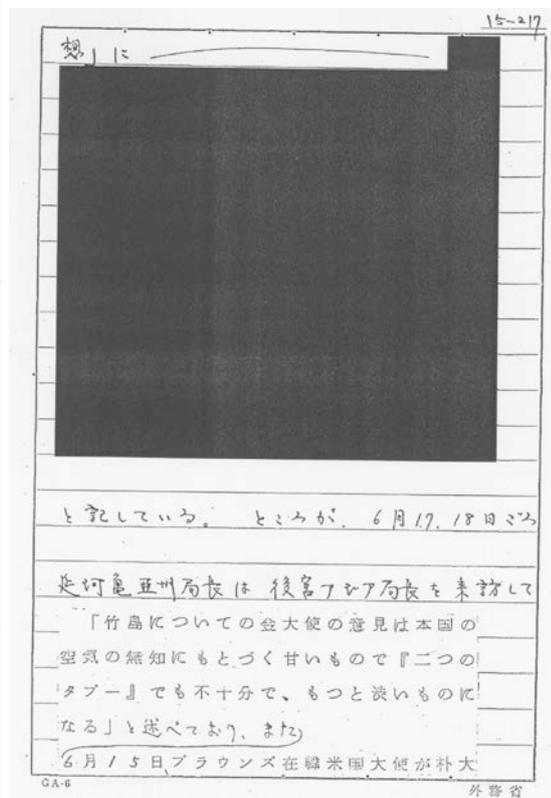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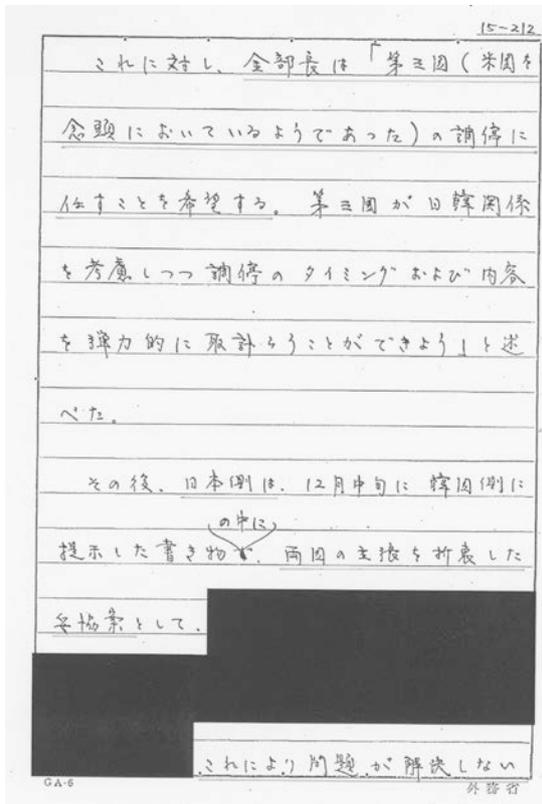
- 2) 국회 답변
 - '태정관 지령문'에 관해서는 일본 국회에서 2006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당시 아베 신조 총리(2006)와 아소 다로 총리(2009)는 **'문서의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한국의 **연합뉴스의 질문(2006)**에도 일본정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 그 후 8년이 지났지만(2014년 현재) **아직 검토,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 일본정부는 **영원히 검토, 조사 할 생각인가요?**
-
- 그런데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 문제연구회'**가 **'태정관 지령문'**의 글속에는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일본학자들에게도 비판당할 정도로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날치기 통과시킨 **'비밀보호법'**을 시행하여 독도관련 문서 중 일본에 불리한 문서를 모두 기밀문서 처리하도록 **획책하고 있습니다.**
 -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정정당당하게 '태정관 지령문' 정 규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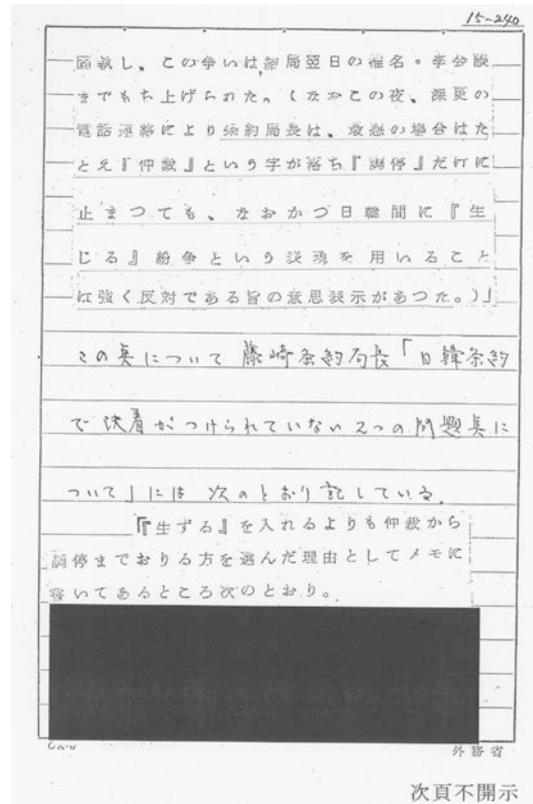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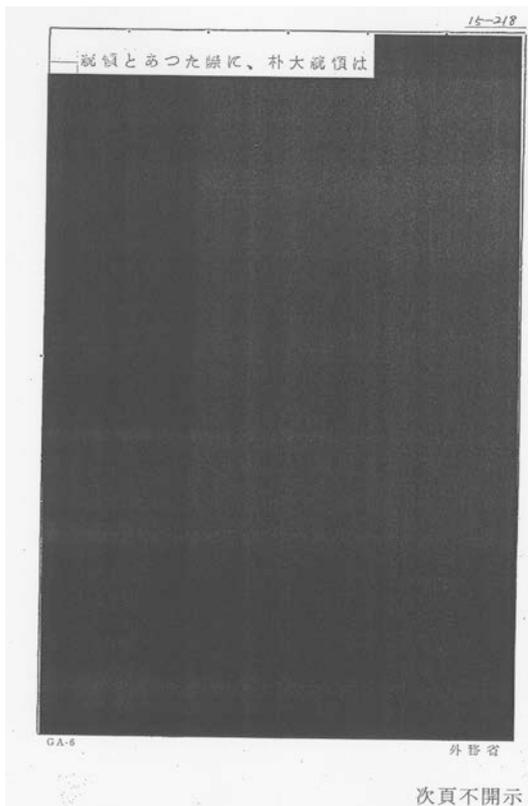
2. 한일협정(1965.6.25.)독도 관련 문서

일본정부는 '비밀보호법'에 의거해 1965년 한일협정문서 속의 '독도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독도는 결국 한국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불리한 문서이니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공개된 독도관련문서는 많은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먹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 위 문서들의 뒷 쪽 2장 하단에는 '다음 페이지 비공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는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 먹으로 읽을 수 없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 독도문제는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 1965년 한일협정 속의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측 회의록의 미공개 부분을 일본정부는 당당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론

-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식전에 정부고위관리를 보내거나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전에, **독도관련 공문서 중 일본정부자체가 은폐·왜곡시킨 공문서를 공개하여 은폐와 왜곡을 바로잡는 일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리입니다.
-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동행을 강요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